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179
----------	-----

발의년월일 : 2005. 9. 12
발 의 자 : 김동철 의원외19인

1. 주 문

○ 영등포구 주거불량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로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에서는 제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선정 발표하였음.

○ 금번에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지역은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이룰 수 있어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지역보다 더 낙후되거나 비슷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신길2동 일대의 지역이 제외됨으로서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하여 상대적인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연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의 불합리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영등포구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가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되거나 특별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특단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등포구주거환경개선등지역균형발전촉구결의문

서울시에서는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식인 뉴타운 개발로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뉴타운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에서는 제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선정 발표 하였고 금번에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동 지역은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이룰 수 있어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지역보다 더 낙후되거나 비슷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신길2동 일대의 지역이 제외됨으로서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하여 상대적인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연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준공업지역 조정, 도시계획 완화, 낙후한 도시 이미지 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해결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번 뉴타운 후보지·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락한 주거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역적 불균형을 현실성 있게 해소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균형개발 및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하여 41만 영등포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1. 서울특별시는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신길2동 일대가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로 탈락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즉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라.
2. 뉴타운·균형발전지구 지정이 어려울 경우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3. 문래동·양평동 일대 준공업지역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4. 서울시는 영등포구와 인접한 양천구, 마포구, 구로구 등과 형평에 맞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5. 문래동, 양평동, 신길2동, 도림동, 대림동 일대는 소규모 민간위주의 개발이 아닌 도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서울시는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비전 제시와 함께 각성하라.
7. 서울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도시관리업무 등 권한을 자치구로 상당부분 이양하라.

2005년 9월 12일